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¹⁾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황세영 연구위원
최홍일 전문연구위원

개요

- 조사목적**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진전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생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 ※ 설문조사 결과는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114개 지표항목 중 41개 지표항목의 결과 생산에 활용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조사결과 중 일부를 제시함.
- 조사대상** ▶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생 9,000명(최종 8,623명 분석)
- ▶ 응답자 분포 : 남자 4,473명(51.9%), 여자 4,150명(48.1%), 초등학생 2,882명(33.4%), 중학생 2,747명(31.9%), 고등학생 2,994명(34.7%), 대도시 3,331명(38.6%), 중소도시 4,147명(48.1%), 읍면지역(13.3%)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코로나19 영향으로 우편조사 병행)
- 조사기간** ▶ 2020년 7월~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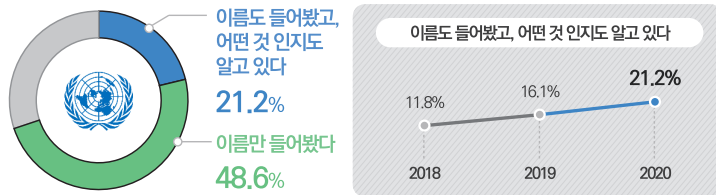
1) 본 블루노트 통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도 연구과제인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의 일부이며 전체 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관련 협약과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20% 선으로 낮은 편이나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이며,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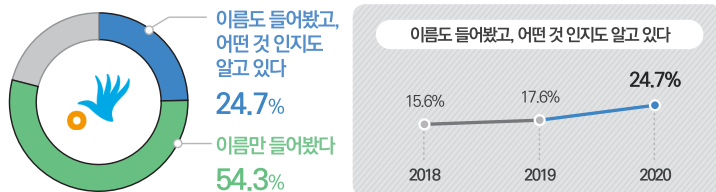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모른다' 30.1%, '이름만 들어봤다' 48.6%,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21.2%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24.3%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19.8%였음.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모른다' 21.0%, '이름만 들어봤다' 54.3%,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24.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27.9%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26.1%), 초등학생(20.2%) 순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 인권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기구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함.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초등학교	38.2	42.0	19.8
중학교	24.3	51.4	24.3
고등학교	27.7	52.5	19.8

국가인권위원회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초등학교	25.3	54.5	20.2
중학교	18.8	53.3	27.9
고등학교	18.8	55.1	26.1

그림 1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 최근 1년간 성, 학업성적, 나이, 외모 및 신체조건, 경제적 수준, 고향 · 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10가지 차별영역별로 차별받은 경험과 다른 사람을 차별해본 경험을 질문함.

-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24.6%), 성차별(23.3%), 학업성적(22.6%), 외모 · 신체조건(20.8%) 등에 따른 차별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2.8%), 종교(2.1%), 경제적 수준(1.6%), 가족유형(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차별해본 경험은 나이(9.2%), 외모 · 신체조건(9.1%), 성차별(8.1%), 학업성적(7.3%)에 따른 차별이 높게 나타나 차별받은 경험과 차별한 경험 모두 '나이'에 따른 차별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 2020년도는 모든 차별영역에서 차별받은 경험과 차별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생활이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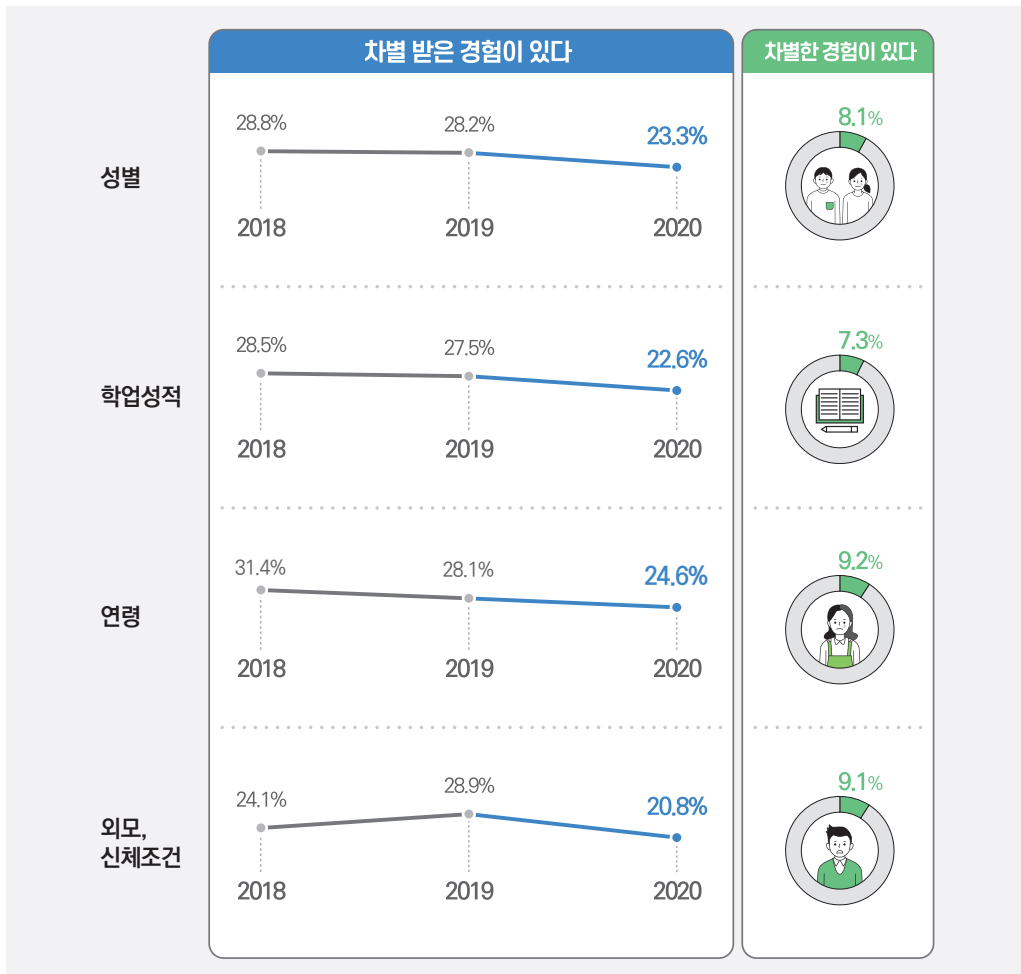


그림 2 차별경험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우리사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71.0%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51.4%, 매우 그렇다 19.6%)'고 응답하여 2013년 51.6%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80.9%), 중학생(71.0%), 고등학생(61.5%)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 부족(27.2%), 참여활동 정보 부족(25.1%),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6%), 부모님 반대(1.8%), 학교의 규제(1.2%) 순의 응답을 보임.
 - 학교급별 응답차이를 보면 초등학생은 시간 부족(28.9%)을 1순위,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26.5%)이 2순위로 응답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1순위였으며(중 38.8%, 고 34.2%), 중학생의 2순위는 시간 부족(27.2%), 고등학생의 2순위는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27.3%)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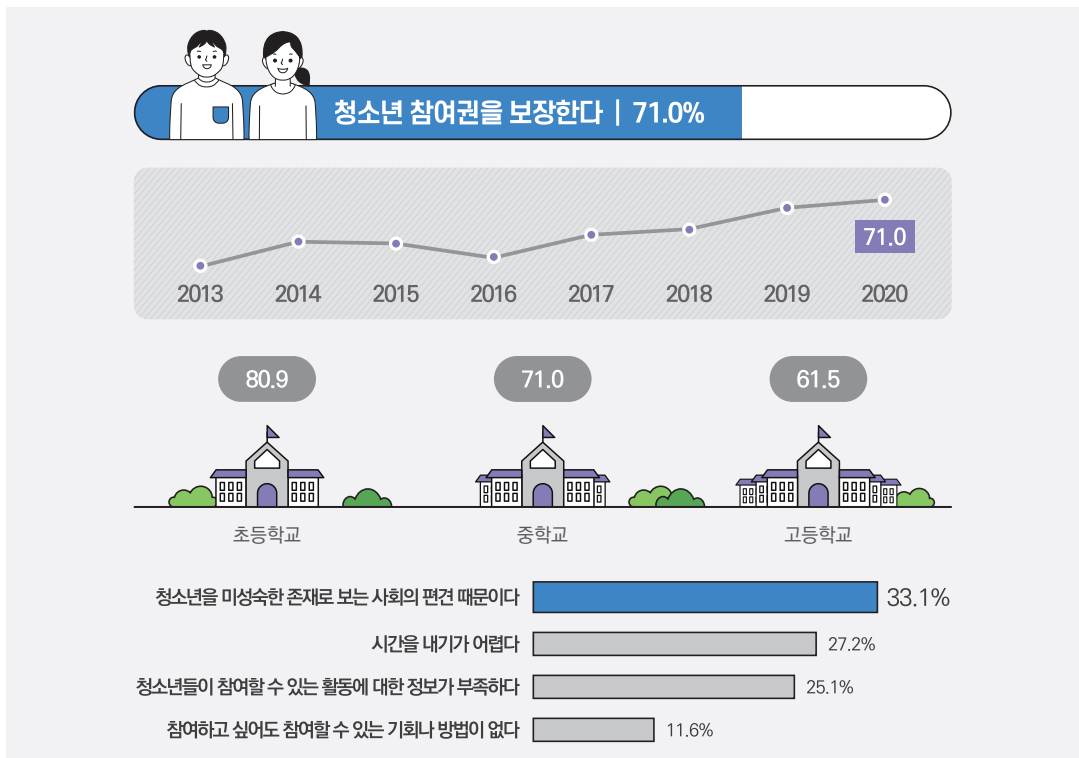


그림 3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3 폭력 및 학대

■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교사로부터 신체적 폭력(체벌)을 받은 경험을 알아본 결과, 부모로부터의 체벌은 22.9%, 교사로부터의 체벌은 4.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1주일에 한 번 이상 체벌 받은 경험의 경우 부모 체벌은 0.8%, 교사 체벌은 0.3%로 나타남.

- 1년에 한 번이라도 체벌받은 경험의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로부터의 체벌은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2.3%, 중 23.4%, 고 13.3%), 교사로부터의 체벌은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4.7%, 중 4.1%, 초 3.1%) 체벌경험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 10년간 체벌 경험을 변화를 보면 부모체벌은 2011년 39.3%에서 2020년 22.9%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교사 체벌은 2011년 38.4%에서 2020년 4.0%로 크게 감소한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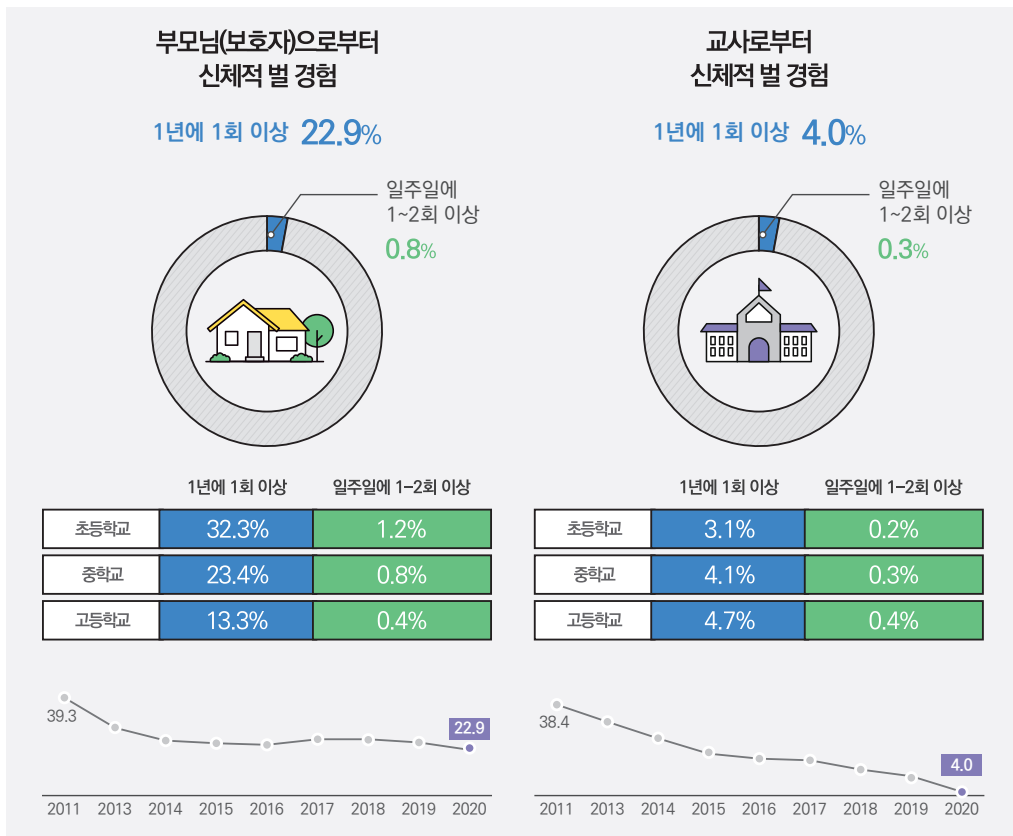


그림 4 부모,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 아동·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방임 실태를 알아본 결과 야간시간 방임 50.5%, 비위생적 의복과 침구 사용 6.2%, 결식 시 방치 4.7%, 질병 시 무관심 3.4%, 결석에 대한 무관심 1.1%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방임 경험률이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 있음.

－ 특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 연령대의 방임 경험률을 보면 야간시간 방임 47.4%, 비위생적 의복과 침구 사용 5.4%, 결식 시 방치 3.7%, 질병 무관심 2.5%, 결석 시 무관심 1.3%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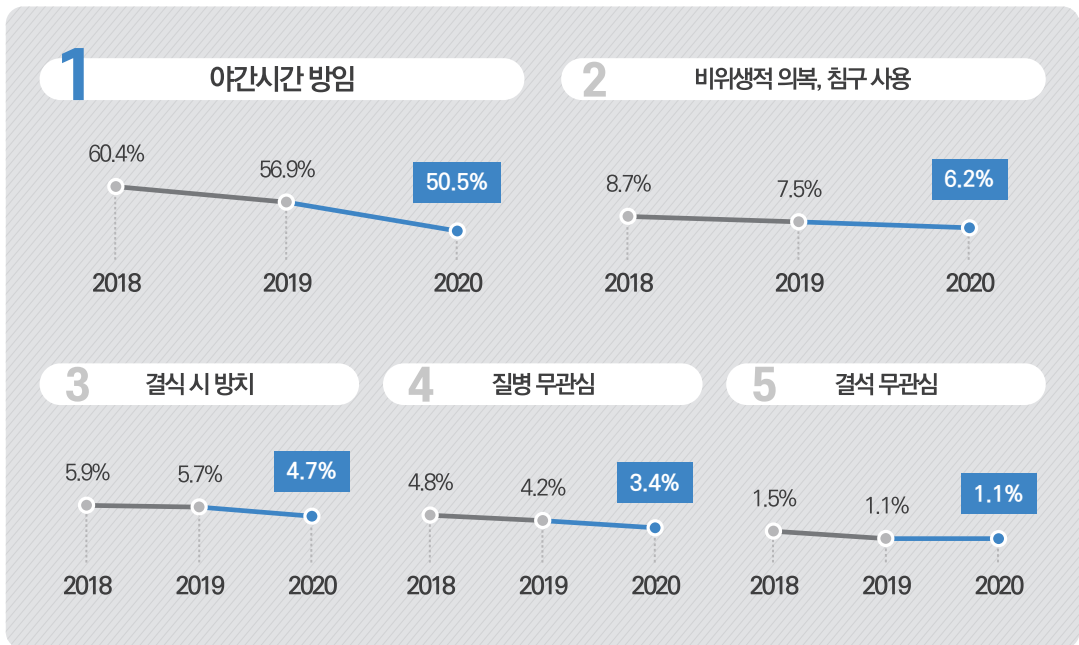


그림 5 아동 방임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지(학교 체육시간 제외) 알아본 결과, '전혀 하지 않음' 22.2%, '한 달에 1~2회' 22.0%, '1주일에 1~2회' 24.5%, '1주일에 3회 이상' 31.3% 등의 응답률을 보여 1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는 아동·청소년은 55.8%로 나타남.

- '1주일에 한 번 이상' 운동을 하는 아동·청소년(55.8%)은 2018년(54.1%)과 2019년(55.0%)에 비해 소폭 증가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2.5%, 중학생 53.1%, 고등학교 42.4% 응답률을 보여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1주일에 한 번도 운동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남. 성별로는 남학생 66.2%, 여학생 44.7%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함.
- '1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아동·청소년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초등학교 43.2%, 중학생 28.1%, 고등학교 22.9%(일반계고등학교 20.8%, 특성화계고등학교 31.5%) 순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운동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남학생(39.9%)이 여학생(22.1%)보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상 35.5%, 중 26.0%, 하 23.1%) 1주일에 3회 이상 운동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남학생은 16.6%, 여학생은 28.2%였고, 초등학교 9.5%, 중학생 22.7%, 고등학교 34.0%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특히 여학생과 고등학교의 운동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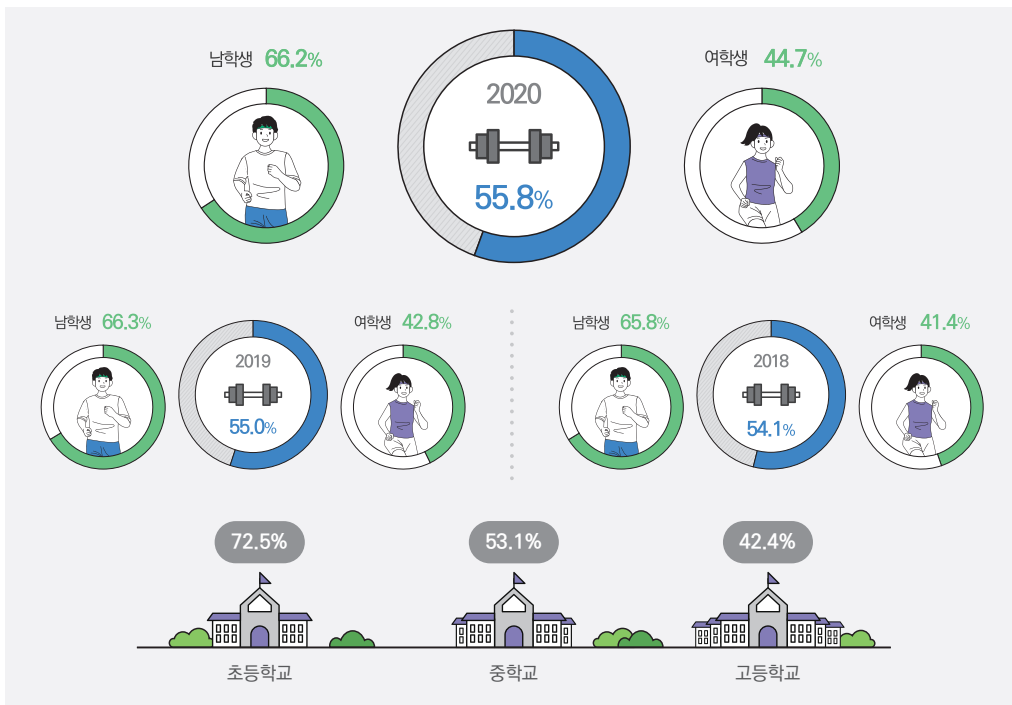


그림 6 1주일에 1회 이상 운동실천율

-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27.0%(가끔 생각 23.1%, 자주 생각 3.9%)가 '그렇다'고 응답함.
 - 여학생(35.0%)이 남학생(19.6%)보다, 고등학생(27.8%)이 중학생(26.1%)보다, 고등학생 중에서는 일반계고등학생(29.3%)이 특성화계고등학생(21.8%)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성적이 하위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하 34.2%, 상 24.9%, 중 23.0%),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하 45.2%, 중 26.1%, 상 24.5%)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39.8%,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5.5%, 가족 간의 갈등 16.0%,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4.8%, 경제적 어려움 1.7% 등으로 나타남.
 - 일반계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46.3%), 특성화계고등학생의 미래·진로불안(46.5%) 요인이 높은 점, 학업성적(상 42.8%)과 경제적 수준(상 43.6%)이 높은 집단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점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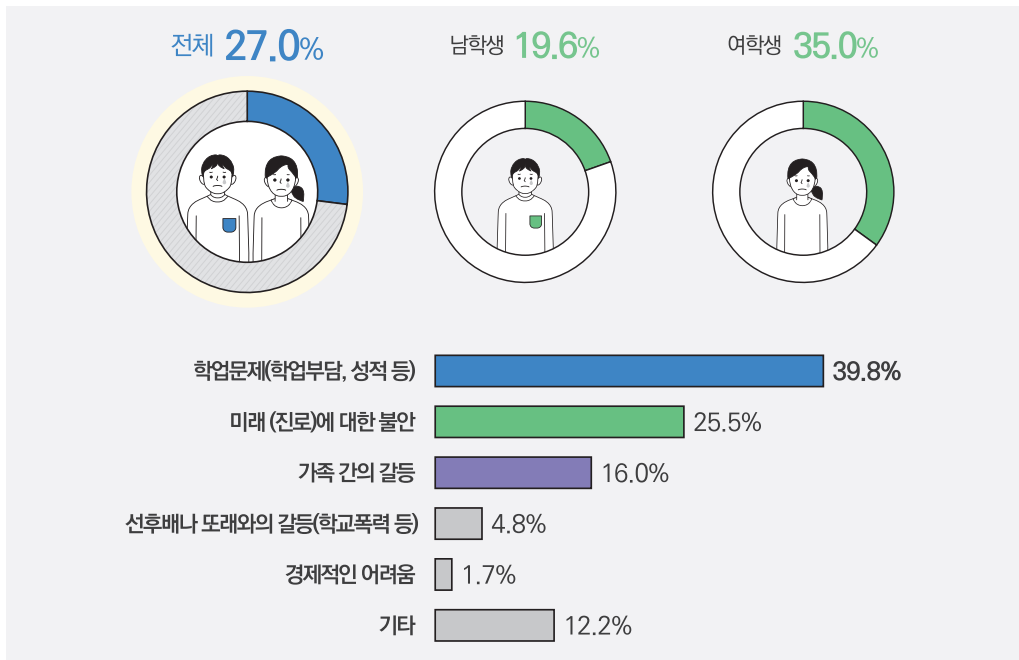


그림 7 죽고싶다는 생각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최근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었던 아동 · 청소년은 23.6%였으며, 학업중단 생각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31.1%로 증가했다가 2020년 23.6%로 감소함.

－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초등학생 17.1%, 중학생 20.5%, 고등학생 32.3%(일반계고 33.2%, 특성화계고 28.6%)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여학생(27.8%)이 남학생(19.6%)보다, 학업성적(상 16.0%, 중 21.6%, 하 37.6%)과 경제적 수준(상 19.3%, 중 26.5%, 하 41.9%)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학업중단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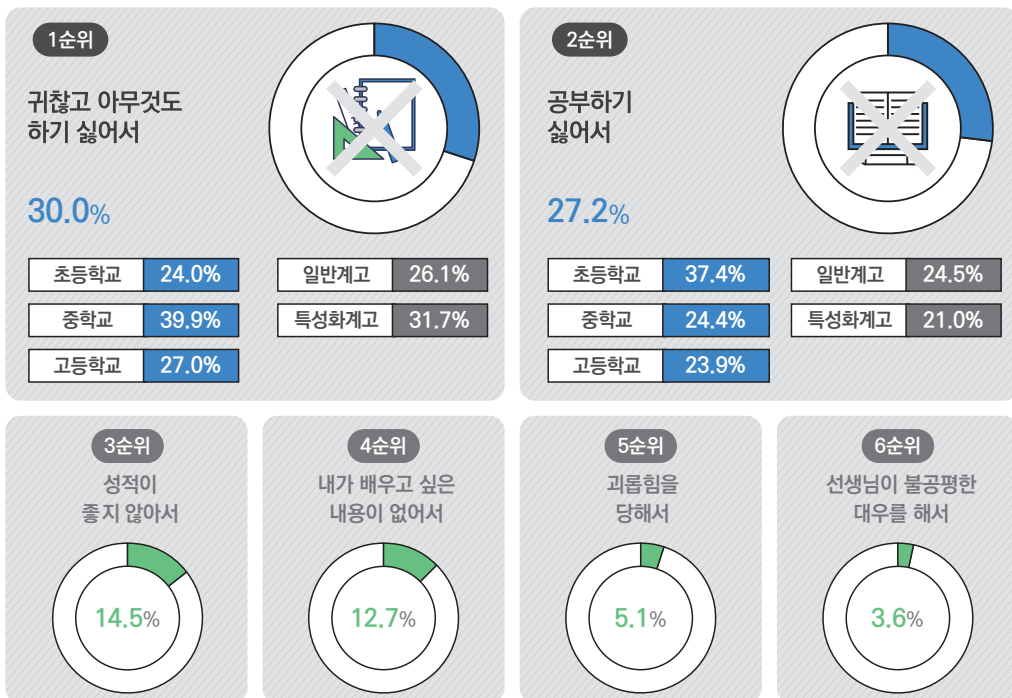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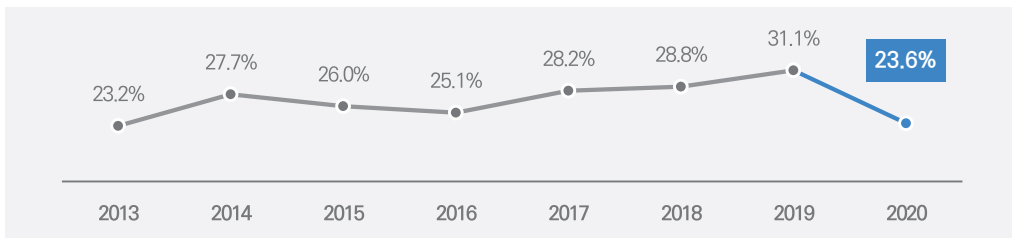


그림 8 학업중단 생각

- 학업중단 생각을 하게 된 이유로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30.0%, '공부하기 싫어서' 27.2%, '성적이 좋지 않아서' 14.5%,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12.7% 등 무기력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은 1순위가 '공부하기 싫어서(37.4%)', 2순위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24.0%)'인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순위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중 39.9%, 고 27.0%)', 2순위가 '공부하기 싫어서(중 24.4%, 고 23.9%)'로 나타나 중등학교 단계에 무기력 요인의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음.
 - 고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고등학생과 특성화계고등학생 모두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일반계고 26.1%, 특성화계고 31.7%)'가 1순위였고 '공부하기 싫어서(일반계고 24.5%, 특성화계고 21.0%)'가 2순위였는데, 3순위에서 일반계고등학생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22.0%)'에 많은 응답을 보인 반면, 특성화계고등학생은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20.2%)'에 높은 응답을 보임.
- 평일 하루 여가시간은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23.3%,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9.8%, 5시간 이상 18.2%,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18.0%,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10.9%, 1시간 미만 9.8%의 응답률을 보여, 하루 여가시간이 3시간 미만인 아동·청소년은 52.9%로 나타남.
 -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초등학생 39.4%, 중학생 53.6%, 고등학생 65.5%(일반계고 69.1%, 특성화계고 50.3%)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하루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인 초등학생이 19.9%, 그 중 1시간 미만인 초등학생도 7.0%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3시간 이상'인 응답률은 2014년 30.8%에서 2019년 34.7%까지 완만하게 상승하였고, 2020년에 47.1%로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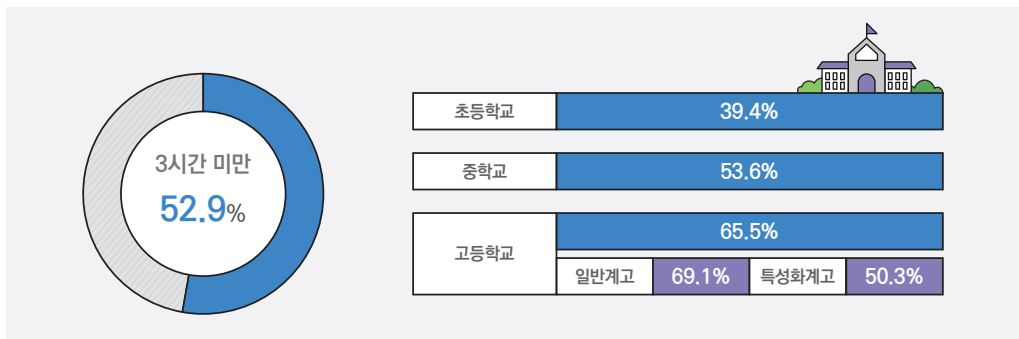


그림 9 평일 하루 여가시간

■ 평일 하루 공부시간(정규 수업시간 제외)은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23.8%,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0.4%, 1시간 미만 19.1%,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17.3%,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10.3%,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5.3%, 6시간 이상 3.7%의 응답률을 보여, 하루 공부시간이 3시간 이상인 아동 · 청소년은 36.6%로 나타남.

-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초등학생 30.7%, 중학생 41.7%, 고등학생 37.6%(일반계고 43.8%, 특성화계고 11.6%)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공부시간이 많은데, 초등학생 연령대의 공부시간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음(초등학생 공부시간 3시간 이상 30.7%, 4시간 이상 15.4%, 5시간 이상 6.9%).
-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3시간 이상인 응답률은 2014년 46.4%에서 2019년 47.3%로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36.6%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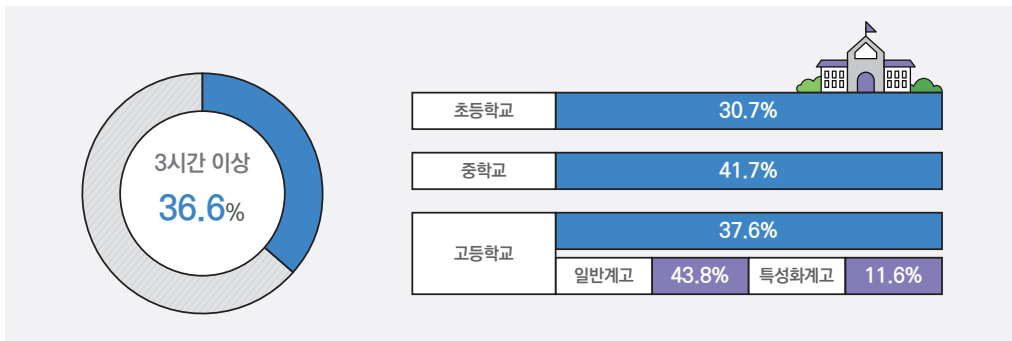


그림 10 평일 하루 공부시간

6 특별보호조치

■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은 5.3%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13.3%에서 2019년 8.5%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크게 감소한 것임.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1%, 일반계고등학생 6.6%, 특성화계고등학생 19.6%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9가지 부당처우 유형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아르바이트 시작 전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음 61.4%,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음 10.5%,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함 7.4%로 나타남. 근로계약서 미작성(중 70.8%, 고 60.4%)과 임금 미지급(중 13.9%, 고 10.1%)은 중학생이, 폭언 등 인격모독(중 4.5%, 고 7.7%)은 고등학생의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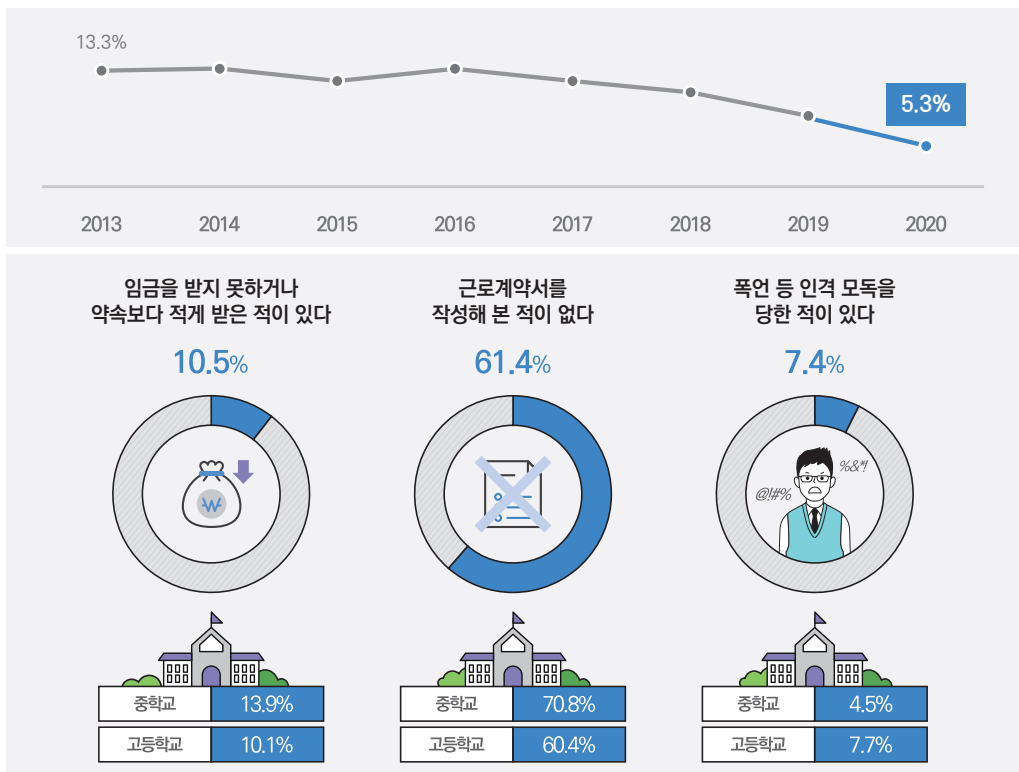


그림 11 아르바이트 경험